

10 오피니언

사설

규모의 아쉬움... 합리적인 상생

2021학년도 코로나19 특별장학금 지급이 결정됐다. 구체적인 지급 기준이나 금액은 양 캠퍼스 간 차이가 있지만, 수혜 대상자는 양 캠퍼스가 유사하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안고 있거나, 학교에서 실험·실습·실기 과목을 원활하게 수행하지 못한 학생들을 중심으로 장학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코로나19가 빚어낸 어려움이 남들보다 더 큰 이들에게 도움을 집중하는 것이 이번 장학의 특징이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학업의 어려움을 겪는 2,000여 명의 학생들에게 적게는 10만 원, 많게는 75만 원 규모의 장학금이 지급된다. 1만 8,000명에 가까운 모든 학생들에게 획일적으로 등록금 실 납부액의 5%를 지급했던 지난해 특별장학과는 다른 모습이다.

코로나19라는 결림돌의 크기가 모두에게 같을 수는 없다. 코로나

는 누군가의 삶에 약간의 제약만을 가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생존의 위협이 되기도 한다. 정상적인 학업을 방해하기도 한다. 모두가 안고 있는 어려움의 무게가 다른 상황에선 더 큰 짐을 짊어진 이들의 부담을 먼저 덜어주는 것이 공동체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배려일 것이다.

이번 특별장학은 장학 총액의 규모에 대한 아쉬움이 남을지라도, 상생의 측면에서는 합리적인 결정으로 보인다. 대학의 한 해 예산은 주로 학생들이 납부하는 등록금과 학교가 수행하는 사업의 수익으로 꾸려진다. 하지만 오르는 물가에도 등록금은 동결된 지 오래고, 학교의 사업 수익은 코로나19로 인해 상당 부분 감소한 상황이다. 그런 와중에 지출은 오히려 늘었다. 인건비는 그대로 지출되면서 더 나은 비대면 수업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비용은 계속해서 발생하

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특별장학은 제한된 재정 여건 속에서 도움이 꼭 필요한 학생들에게 지원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코로나19 특별장학을 둘러싼 대학본부와 학생 대표단 사이의 소통이 매끄럽게 이뤄졌다는 점 역시 바람직하다. 전완주(일본어학 2015) 국제캠퍼스 총학생회장은 “여러 아쉬움이 남는 것도 사실이지만, (코로나19 특별장학금 논의를 위한) 소통위원회는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마무리됐다”고 평가했다. 대학의 고위급 관계자가 얼굴을 붉히며 협상 테이블을 박차고 회의를 나가거나 학생 대표단이 본관과 중앙도서관 안에서 밤샘 농성을 하고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며 집회를 개최하던 지난해의 모습과는 대조된다.

하지만 성과를 칭찬하기는 이르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연일 네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다. 감염 확

산세가 잦아들던 6월 말, 대학본부는 1학기보다 완화된 수업 운영 방침을 발표했지만 한 달여 지난 8월의 확산세는 그 어느 때보다 거세다. ‘위드 코로나’의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당장 앞날도 쉽게 예측할 수 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새 학기는 시작된다. 지금 요구되는 것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시시각각 변화하는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대학과 학생 대표단의 모습일 것이다.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방안을 찾아내기 위해 지혜를 모으는 자세가 필요하다. 코로나19와 함께 하는 4번째 학기가 시작된다. 우리는 늘 그래왔던 것처럼 안전과 학사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할 것이다. 이전 또 다른 변수에 대비할 때다.

세시봉

헌신의 대가



김경민 기자
elude12@khu.ac.kr

지난 12일 해군 여군 부사관이 상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뒤 극단적 선택으로 숨졌다.

피해자는 상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곧바로 부대에 사실을 알렸다. 그러나 가해자와의 분리조치조차 이뤄지지 않아 2차 가해가 이어졌다. 피해자의 요구로 뒤늦게 성추행 조사가 시작됐지만 피해자는 그로부터 5일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해군 여군 사망 사건 다음날 서욱 국방부 장관은 대국민 사과를 하며 진상 규명과 개선 조치를 약속했다. 그러나 군의 제발 방지 약속엔 의구심이 따른다. 국방부는 이미 지난 6월 공군에서 발생한 여군 부사관 성폭력 사망 사건으로 사과와 함께 제발 방지를 천명했다. 그럼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동일한 성폭력 및 2차 가해로 인한 사망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군대 내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4월 부실급식 논란이 불거지자 국방부는 개선 조치에 착수했다. 그럼에도 일선 부대에서 연이어 부실급식 폭로가 나오면서 서 장관은 대대적인 개혁을 약속하며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지난 16일 일부 부대에서 다시금 부실급식 논란이 제기되면서 그의 사과는 무색해졌다.

올해 국방부 장관의 대국민 사과는 7번째, 국방부의 수장인 그의 말로도 군대 내 부조리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 한국 군대의 현주소이다. 부조리의 공문화 과정도 군 내부가 아닌 국민청원, 페이스북 등 외부 채널을 통해 이뤄졌다. 내부 자정 기능도, 신고 기능도 부재한 것이다.

헌신의 대가는 무엇인가. 개인의 안위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군대에서 누가 ‘위국헌신’의 마음으로 젊음을 바치겠는가. 군이 장병의 인격조차 지키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공명불에 불과할 뿐이다.

해결되지 않는 위협 속에서도 군대 내 청춘들은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국가의 부름을 받아 복무 중인 수많은 우리학교 출신 장병들도 예외는 아니다. 안전과 안위조차 보장받기 힘든 군대, 그들이 무사히 경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의 관심이 필요한 때이다.

만평이 있는 취재수첩 | 학생 중심의 강의 개설

교양은 저학년용?



이봄 기자
lbom.kr@khu.ac.kr

“교양은 저학년용” 취재 중 한 재학생이 들려준 교양강의에 대한 생각이다. 저학년 때는 관심 분야 위주로 수강했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졸업요건을 채우기 위한 용도로 변해간다는 의미다. 교양이 지닌 의미가 무엇인지 인식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여전히 많은 상황이다.

연구 자료에 따르면 학생들은 교양에서 재미와 감동 같은 정서적 요소가 포함된 강의를 좋은 강의로 여긴다고 한다. 학생들이 느끼는 교양강의의 가장 큰 실패 요인은 재미와 감동의 결여에서 나오는 동기 부족인 셈이다.

후마니타스 칼리지는 우리대학이 자랑하는 교양 교육 시스템이다. 하지만 정작 학생들이 듣고 싶은 강의를 부재하다면 학생들이 열의를 갖고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들게 된다. 우리신문의 과거 취재에서도 학생들이 ‘원하는 강의가 없다’는 반응을 꾸준히 보여 왔다는 점은, 후마니타스 칼리지에 비용과 인력 투입 이상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방증일지 모른다.

과거 후마니타스 칼리지 학장은 교육 과정 개편 토론회에서 “교육 과정 개편은 톱다운 방식이고, 모든 사안에 대해 일일이 모든 사람의 의견을 취합하여 진행하기는 물리적으로 힘들다”며 교육 과정 개편에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음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대학은 사회 변화에 따라 새로운 요구에 직면했다. 전통적인 형태를 고수하기보다 사회의 요구, 수요자인 학생의 요구에 귀 기울여야 할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 총학생회가 주축이 되어 강의 공모가 진행되었고,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원했던 만족도 높은 강의가 진행되었다는 사실에서 변화의 필요와 방향성은 이미 검증되지 않았을까.



만평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

경희대학교

교시 문화세계의 창조
교훈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

발행인 한군태 | 편집인 남윤재 | 편집장 이태영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회기동) Tel 02-961-0093~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서천동) Tel 031-201-3230~2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khunews>
이메일 khunews@khu.ac.kr

제작 청송디자인 | 인쇄 옴니퍼먼디